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4:11)

1. 우즈겐 모임

우즈겐 성도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특히 미를란과 아가임의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미를란은 신장에 돌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매일 통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청소년들을 데리고 북쪽 마을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가임은 수년전에 했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 다시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합니다. 몰도바에서 공부를 마친 누리잔이 돌아왔습니다. 우즈겐에서 어학원(영어)을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 자매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몰도바에서 공부하고 있는 메림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이잔(누리잔의 여동생)이 몰도바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과 지식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현지 청년들이 필요들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에게는 몰도바에 가는 항공료도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추력의 큰아들 킬렉은 비쉬켈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년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기독교대학교에 잘 진학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필드 리더쉽

필드 리더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전에 리더쉽 그룹의 일원으로 섬겼는데, 리더로서 섬기는 것은 다른 헌신과 맘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달에는 다리 수술하는 자녀, 다리가 부러져서 기브스를 한 자녀들로 분주했습니다. 현지에서 자녀들이 다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필드에는 20명의 스무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된 갓난아이부터 12학년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비자여행

지난달에 소식을 전해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비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타이밍에 노동허가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노동허가권 발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노동허가권을 발급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권을 발급 받으면 5년 영주권을 신청할 것입니다. 이번이 3번째 신청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4. 호프 아카데미와 한국어 강의

8월 26일부터 심영미 선교사와 아이들의 학업과 사역이 시작됩니다. 긴 방학을 여름 사역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학기를 잘 맞이하고자 합니다. 심영미 선교사는 쉼이 필요한데, 쉴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툼툼히 잘 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서는 벌써 10학년(고1)에 진학을 하

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학업에 큰 소망이 없지만, 학업보다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은서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과 현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솔이는 소심한 성격 탓에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은솔이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은후는 여전히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 은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9월부터 노동허가권을 발급해 줄 곳에서 일주일에 3일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있는 고려인 후손과 키르기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저에게도 현지인들과 좋은 접착점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분들과 협력해서 사역하는 일에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 여름 단기 사역

지난 7/28-8/2에는 신일교회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즈겐 고아원과 우즈겐 교회에서 섬기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팀에서 저희 가정을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해 주어서, 특히 저희 아이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많이 남겨 주신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5-13일에는 침술팀이 방문을 하십니다. 우즈겐 마을들에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의료 사역이기에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가족 모두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아이들도 통역으로, 심부름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8/12-17일에는 베들레헴 ㄱ에서 청소년들이 방문을 합니다. 청소년들과 중독자 센터에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과 보안, 건강, 무엇보다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긴해 주십시오.

※ ㄱ 제 목

1. ㄱ에서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역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ㄱ사자가 되도록,
2. 우즈겐 ㄱ과 성도들과 리더들을(미를란/아가임, 아이추력)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3. 아이추력과 네 자녀가 믿음에 견고히 세워지고, 군입대한 압둘라흐만을 위하여,
4. 페르가나 골짜기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를 위하여 그 땅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나아가도록
5. 심영미 ㄱ사자가 방학동안 잘 재충전하고, MK 사역과 필드 리더의 사역을 잘 병행하도록
호프 아카데미에 좋은 교사들이 충원되도록
6. 은서, 은솔, 은후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무엇보다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도록
7. 필드 리더로 멤버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영적, 심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8. 필요한 만남, 새로운 관계, 재정적 필요들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도록,
9. 노동허가권을 순적하게 발급받고, 이후에 5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10.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11.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12. 침술팀과 베들레헴교회 청소년 팀을 위하여, 팀들마다 은혜의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13. 우즈겐 청소년들, 누리잔, 메림, 아이잔, 툴렉 이외에 누르자말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